

예술가들 떠나는 대인예술시장

‘별장’ 등으로 전국적 명소 ... 상권 뜨니 임대료 2배 올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입주작가 30여명→10명 줄어

1913 송정역시장은 방지 협약

광주시 동구 대인예술시장 2층에 입주한 40대 작가 A씨는 최근 동료들이 떠나가며 시장에서 작업하는 재미를 못 느끼고 있다. 처음 입주했던 2011년에는 약 30명이었던 개인입주작가들이 임대료가 상승하자 지금은 10여명으로 줄었다. 레지던시 등 각종 지원사업이 활발했을 시기에는 70명을 헤아렸던 적도 있었다.

본인 작업실도 3년 전 보증금 200만원에 월 임대료 10만원에서 지금은 300만원에 20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올랐다.

A씨는 “시장 점포는 좁고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불편한 환경이다”며 “현재 임대료라면 다른 곳에 더 좋은 작업실

을 구할 수 있어 시장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색있는 볼거리로 호응을 얻고 있는 광주지역 전통시장들에게서 최근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우려했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정체성 상실’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개 대인예술시장이다. 대인시장은 지난 2008년 청년작가들에게 비어있는 점포를 싼 임대료에 제공하는 광주 비엔날레 ‘북더방 프로젝트’를 계기로 활성화됐다. 작가들은 벽화 등 시장 분위기를 변화시켰고 2011년부터는 야시장 ‘별장’이 시작되며 매 주말이면 수천명이 찾는 전국적 명소가 됐다.

하지만 장사가 잘된다는 소문이 퍼지자

젠트리피케이션

낙후 지역에 입주한 예술가나 창업가들이 특색있는 거리를 꾸며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 쫓겨나는 현상. 대표적으로 서울 홍대거리가 있다.

월평균 임대료는 초창기 5만원에서 20만원 이상으로 올랐다. 작가들이 떠나가면 상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평소에는 문을 닫고 있다가 야시장 때만 영업하며 먹거리를 파는 사람이 늘었다.

23일 파악된 바로는 개인 입주작가 10여명, 레지던시 ‘다오라’ 참여작가 7명, 다다창작스튜디오 4명 등 약 20명이 대인시장을 지키고 있다. ‘2016광주비엔날레’ 지역 협력큐레이터를 맡고 있는 대인공간 ‘미데-우그르’는 공동화장실 등 열악한 시설 때문에 내년 시장 바깥으로 장소를 옮길 예정이다.

시장을 지키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상인회, 건물주, 세입자, 예술인 등이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임대료 인상 자제 협약을 맺기도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큰 성과를 못 거뒀다. 특히 개인 셀러들이 줄어들고 있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약 150개였던 셀러 부스는 현재 100개 수준으로 떨어졌다. 판매 저조, 매주 상품을 만들어내야하는 피로감,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확대된 점이 이유로 꼽힌다.

반면 최근 각광받고 있는 광산구 ‘1913 송정역시장’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미연에 방지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 5월 한 건물주가 과도한 임대료를 받고 프랜차이즈점을 입점시키려 하자 청년 상인들이 돈을 모아 계약금을 몰아주고 백지화시켰다. 6월에는 건물주들과 청년상인들이 임대기간 보장, 적정 수준 임대료 유지 등을 골자로 협약을 맺기도 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중 관광객 6400명 실은 크루즈선 여수 온다

9월 13·18일 두차례 입항
사상 최대 ... 지역경제 호재

중국인 관광객 6400여 명을 싣고 오는 9월 두 차례에 걸쳐 여수에 들어오는 크루즈선 마리나호가 긴 체류시간, 관광지 유류 입장 등을 조건으로 입항해 눈길을 끌고 있다. 면세점 등 소비 유인시설이 없고 체류시간도 짧아 지역경제 기여 정도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남도가 ‘공’을 들인 결과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6400여 명의 중국 커티(KELT)그룹의 임직원들이 여객정원 3840명, 승무원 1185명 등 로열 캐리비언 선사 14만급 마리나호를 타고 오는 9월 13일과 18일 두 차례 여수에 입항한다. 여수에 14만급이 입항한 것은 지난 2014년 말 8만급에서 15만급으로 객정원 3840명, 승무원 1185명 등 로열 캐리비언 선사 14만급 마리나호를 타고 오는 9월 13일과 18일 두 차례 여수에 입항한다. 여수에 14만급이 입항한 것은 지난 2014년 말 8만급에서 15만급으로 객정원 3840명, 승무원 1185명 등 로열 캐리비언 선사 14만급 마리나호를 타고 오는 9월 13일과 18일 두 차례 여수에 입항한다. 여수에 14만급이 입항한 것은 지난 2014년 말 8만급에서 15만급으로 객정원 3840명, 승무원 1185명 등 로열 캐리비언 선사 14만급 마리나호를 타고 오는 9월 13일과 18일 두 차례 여수에 입항한다.

전남도는 지난 4월 중국에서 국제크

루즈선 유치 현지 마케팅 과정에서 커티 그룹의 기업보상관광 정보를 얻어 지난 달부터 사전 협의를 벌여왔다. 최근 전남도와 협약을 체결한 커티그룹은 순천 낙안읍성, 여수 아쿠아리움, 빅오소 등 관광지 3곳 유류관광, 종식 1차례, 특산물 구입쿠폰(1인 1만원) 발행, 승선체험 제공 등을 약속했다. 전남도는 입항할 환경행사, 특산물 판매장 및 먹거리 장터 운영, 출입국 절차 등 지원 등을 맡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커티그룹 임직원 6400여 명은 여수에 15시간을 체류하게 되며, 이는 제주 평균 4시간에 비해 3배 이상이라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또 통상적으로 중국 크루즈 관광객이 평균 6000~7000원의 저가 식사를 하는데 비해 이번 방문객들은 2만원 부페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크루즈 관광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짜내고 커티그룹을 지속적으로 접촉한 결과 좋은 성과를 내게 됐다”며 “앞으로 전남을 찾는 중국이나 일본 국제 크루즈선이 되도록 지역육성, 지역점포를 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제5회 청소년축제 ... 젊음의 끼 발산

좋아하는 춤을 맘껏 출 수 있으니 얼마나 신날까. 지난 2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 특설무대 일대에서 열린 ‘제 5회 청소년축제’에서 동일미래과학고 학생들이 구성된 ‘베아트리스’ 팀이 음악에 맞춰 열정적인 춤을 선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7·18·22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강운태 실형선고-과태료 폭탄 ▶6면

목포 항구축제 8개 프로그램 ▶11면

광주 정조국 시즌 최다 14골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올 여름 ‘역대급 폭염’

세계기상기구,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 예고
불볕더위 8월 초 절정...9월 중순까지 이어질 듯

올해 온열질환으로 3명이 사망하는 등 사람잡는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 여름 광주·전남을 비롯한 한반도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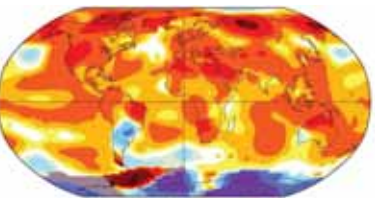
24일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14개월 연속 기온과 해양 온도가 월간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올해가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도 8~9월 광주·전남에 불볕더위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보를 내놨다. 기상청은 다음달 평균기온이 평년(25.8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무덥고 습한 날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같은 더위는 8월 초순에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9월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지역에는 지난 5월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징후가 나타났다.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2016년



광주·전남의 5월 평균기온은 18.5도로 1973년 이후 역대 2위로 기록됐다.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평균기온도 평년보다 0.8도 높은 24도를 기록했다. 또 지난 20일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내리친 폭염주의보도 닷새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9월 후반이나 돼야 가을날씨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5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온열환자는 모두 466명(광주 26명, 전남 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3명)보다 46%가량 증가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세상의 모든 빛을 압도하는
눈부신 자신감
헤라 UV 미스트 쿠션

언제 어디서나 찬란한 빛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울트라 미립 분산 기술이
한 번의 터치로 피부를 일찍이
들뜸없이 완벽하게, 더 촉촉하고 섬세하게-
건강한 윤기분류 피부를 선사합니다

HERA

• 유명백화점이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고객상담실: 080-023-5454(수신료 무료) www.hera.co.kr